

# 근대전환기 동아시아 삼국과 한국

— 근대인식과 정책

진재교  
임경석 외

동아시아학술원 04



## 근대전환기 동아시아 삼국과 한국—근대인식과 정책

인쇄 2006년 2월 25일 발행 2006년 2월 28일

편집국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편집이 서장돈 편집인 마인성(동아시아학술원)

주소 110-745 서울특별시 종로구 영륜동 37가 53 성균관대학교

전화 출판부 02-760-1252~4, 동아시아학술원 행정실 02-760-0781~4

© 2006,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값 23,000원

ISBN 89-7986-669-0 94910 잘못된 책은 구입한 곳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성균관대학교 중앙도서관



로서, 조선공산당이 해체된 이후 국제선 공산주의그룹의 변화된 새로운 관점을 잘 보여준다. 이경돈은 1926년에 창간된 잡지 『별건곤(別乾坤)』에 보이는 근대적 취미로서의 ‘독물(讀物)’에 주목하였다. 이미 근대 계몽독물로서 현실성과 사시성을 갖춘 유력한 형식으로 인정받았던 소설의 사시는 이 『별건곤』을 통해서 일약 취미독물로서 전면에 나서는 바, 대중적 취미의 한 예를 확인할 수 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연구의 시선과 주제가 다양하다. 참여연구자가 역사학, 문학, 사회과학 등 다양할뿐더러 개별 관심 또한 일률적이지 않아 분야마다 다기한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이 점은 향후 이 분야 연구에 약이 될 수 있겠지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계심을 늦출 수 없다. 각개 약진만 힘으로써 만나서 협의되는 지점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쯤이면 이 점은 의도한 측면이 없지 않다. 앞으로의 과제로 ‘자기인식과 대외인식’ 부분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은 다음 책에서 보완될 것이며,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근대 동아시아상의 일갈(一喝)은 못되더라도 이 분야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될 것임은 감히 의심할 지 않는다.

끝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우리는 적잖은 도움을 받았음을 밝혀둔다. 우선 학술진흥재단이 시행하는 2002년도 기초학문육성 인문사회분야 연구비 지원으로 이 연구는 시작되었다. 이 기회로 다양한 연구자들이 여러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은 이 책을 발간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학술총서’로까지 기획하였다. 성균관대학교 출판부도 딱딱한 원고의 교정을 마다하지 않았다.

2006년 1월 연구책임자 진재교

| 차례 |

• 책머리에 ... 5

제1부 | 동아시아 근대의 형성과 한국인식 ..... 11

19세기 전반 淸人の朝鮮使行 | 구병진 13  
 - 柏濼(1844년)과 花沙嶽(1845년)의 경우  
 『申報』를 통해 본 1880년대의 조선 사회 | 강성남 43  
 가린-미허일로프스키의 여행기에 비친 1898년의 한국 | 이희수 81  
 - 『조선-민주 운동변도 기행』과 『조선의 민명』  
 러일전쟁 시기 중국 知識界의 동아시아 인식 | 오병수 111  
 - 『東方雜誌』의 立憲自強論을 중심으로  
 근대 동아시아의 초국적 자본의 성장과 한계 | 강진아 147  
 - 재한화교기원 同願齋(1874~1937)의 사례

제2부 | 동아시아의 근대적 재편과 한국정책 ..... 177

1920년대 후반 제국일본의 재만 조선인 정책 | 신규철 179  
 - 『滿洲一體化』의 좌절과 『三東協定』  
 滿洲事變 前後 滿洲韓人の 国籍문제와 중국·일본의 대응 | 손승희 215  
 아나니하라 타다오(矢内原忠雄)의 식민정책론과 조선인식 | 이규수 251  
 구동공화국의 건설과 소련의 동아시아정책 | 홍용호 283  
 소련의 소수민족정책과 한인 | 배은경 313  
 -1937년 한인 강제이주정책을 중심으로  
 해방 직후 북한 민족주의세력에 대한 소련의 인식과 정책 | 이재춘 357

제3부 | 한국의 '근대'와 근대인식 ..... 393

19세기 서적의 수입·유통을 통한 지식생장과 동아시아 문화비명 | 진계교 395

-서울 학인의 몇 사례를 중심으로

1900년대의 여성, 그 전도된 인식과 반영의 궤적 | 정환국 429

1906·7년 소설에 나타난 여성을 중심으로

신채호의 반지본주의 사회혁명론 | 안태정 455

잡지 『꿈무니스트』와 국제선 공산주의그룹 | 임경석 499

『別乾坤』과 근대 趣味讀物 | 이경돈 527

• 찾아보기 ... 566

• 집필자 소개 ... 573

## 『申報』를 통해 본 1880년대의 조선 사회\*

김성남

### 1. 들어가는 말

오랜 쇠국정책 끝에 조선은 1876년 일본과의 강화도조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리고 이어서 1882년 한미수호조약을 시작으로 독일, 프랑스와의 조약체결, 중국과의 수륙무역상장정 등을 맺게 되면서 조선 명에는 본격적으로 외국 문물과 외국인들이 물려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처음으로 외국문물을 접하면서 발생되는 좌충우돌의 시행착오 속에서 전통문화에 대한 집착과 새로운 문물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타율적 문화개방 속에서 전통의 해체를 강요당한 백성들의 당혹감과 저항이 1880년대 조선 명에서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었다. 또한 조선 내부에서 올라오는 근대화에 대한 내부 동력과 기존의 봉건체제가 상호 대립하면서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이라는 대 정치적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으니, 봉건체제와 근대가 교차하는, 그야말로 봉건시대와 근대가, 동양과 서양이, 제국주의 열강과 중국과의 시대관계가 서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조선반도 위에서 어지럽게 충돌하고 있었다.

\*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072-A13004).

이 개항을 전후로 한 1880년대는 학계에서도 많은 관심과 논쟁을 모으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이 시기의 연구동향은 대체로 개화파와 수구파의 갈등, 근대화에 대한 지음, 타율의 문제,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의 국제적 역학관계와 역사적 의미 등에 주로 집중되어왔다. 그만큼 ‘근대화’와 ‘민족’이란 개념이 집착하여 왔기에 상대적으로 이 시기의 사회문화 현상에 대해서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1880년대의 사회문화 현상이나 풍속 등의 연구 실적은 상당히 부진한 형편인데,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자료의 부족과 한계일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는 최초로 외국 문물을 접하게 된 시기인 만큼 그 충격과 혼란은 더욱 컸을 것이며, 근대화를 여는, 그야말로 천지가 뒤바뀌는 세기 말 대혼란의 시대였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조선은 이 새로운 변화와 문화의 충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봉건문화와 근대문화는 어떠한 모습으로 혼재하고 있었을까를 검토해 보는 것은 근대전환기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복잡한 국내의정세 속에 놓여 있던 개화기 당시 조선의 사회문화와 풍속에 관해 남겨진 자료들은 불행하게도 외국인들에 의한 기록과 사진들이 대부분이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서양의 외교관, 여행가, 선교사들이 조선에 대한 소개서를 출판하기 시작하면서 이 책들을 통하여 조선이라는 나라가 서양 세계에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1886년 조선 최초의 영어교육 기관인 육영공원에서 영어교사로 일했던 헐버트(Homer B. Hulbert, 1863~1949)와 길모어(George William Gilmore, 1857~?) 그리고 비숍(Isabella Bird Bishop, 1831~1904), 게일(James S. Gale, 1863~1937) 등이 남긴 저술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 가장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신문인데, 조선에서는 1883년 10월부터 『한성순보』가 열흘간격으로 간행되었지만 이어 발

생한 갑신정변으로 1년 여 만에 정간되어 그 당시의 사회문화에 대한 기사는 찾기가 힘든 실정이다. 그래서 본 글은 당시 중국 상해에서 발행되었던 일간 신문인 『申報』에 실린 기사들을 발췌 정리하여 1880년대의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고찰을 해보려고 한다. 특히 1882년 임오군란과 뒤이어 발생한 갑신정변을 전후로 한 시기에 집중하려고 한다. 이는 이 시기가 개항으로 인한 충격과 저항이 가장 심각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이라는 매우 상징적인 변화의 진통을 겪은 시기이기 때문이다.

『신보』는 중국 이름 美查(Ernest Major)라는 영국인이 1862년 중문으로 처음 발행을 시작하였는데, 후에 지분이 부족하여 다시 다른 영국인 3명과 합치하여 1872년 5월부터 정식 일간으로 간행이 되었으며 매호는 8면 단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신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美查는 신문도 일종의 상품이며, 신문사도 기업경영이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정보를 사실 그대로 전하려고 노력하였다고 한다.<sup>1)</sup> 또한 『신보』의 보다는 많은 판매를 위해 중국인을 편집주간으로 하여 서양 기자들이 현지에서 電報로 본국과 홍콩 등지로 발송하는 외국 관련 기사들을 신속하고도 다량으로 인용 보도하였다.<sup>2)</sup> 이로 인해 『신보』의 1~2면에는 당시 중국이 당면했던 월남과 포랑스 문제, 조선과 일본에 관한 논설들과 관련 소식들이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다.

『신보』에 대한 우리 학계의 관심도 커서 『신보』의 한국 관련 기사들 중 이미 1910년 이후 관련 기사들이 발췌 정리되어 출판되었다.<sup>3)</sup> 그러나 그 이전 기사에 대한 정리 작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본

1) 『申報』, 『本館作報本意』, 『本報之開館, 余憲直言不諱焉, 原因謗業所開者耳』, 1875년 10월 11일.

2) 陳玉申, 『晚清報業史』, 濟南: 山東畫報出版社, 2003, 39~40면 참조.

3) 石源華主編, 『申報有關韓國獨立運動史中韓關係史料選編』, 人民文學出版社, 2000. 趙中孚主編, 『近代中韓關係史料匯編』, 臺北國史館, 1988.

논문은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을 전후로 한 시기에 『신보』에 보도되었던 조선 관련 기사들을 모두 발췌한 후, 그 중에서 사회 문화 현상에 관한 기사들을 중심으로 당시 조선사회를 고찰해보려고 한다. 『신보』에는 사회문화 방면의 각종 논설들과 함께 절기행사와 놀이 풍습, 그리고 조선에서 일어난 각종 사건과 사고 기록, 유행한 전염병 등의 상황까지도 소상히 보도되어 있어 비교적 정확한 객관적 자료들을 제공해주고 있다. 이는 물론 중국인들의 시각으로 씌어진 것이 만큼 분명한 그 한계를 갖고 있지만, 중국 판방 자료에서는 얻지 못하는 다양한 기사들을 볼 수 있고, 또한 일간 신문으로서의 시사성과 객관적인 사실의 구체적 정황들을 알아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2. 봉건왕조의 유지와 강화

### 1) 왕실 행사

개회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지만, 왕실의 보존과 권위를 위한 행사들은 여전히 유지 강화되고 있었다. 정엄한 행렬을 갖춘 왕실 행차는 바로 왕실의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는 중요한 수단인 동시에 백성들에게는 보는 기쁨을 베풀어주는 행사였으며, 왕실의 권위를 세우고 백성들에게 충성심을 고무시킬 수 있는 기회였다.

『신보』에는 왕실 행사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보이는데, 당시 조선의 경제적 상황에 비해 화려하고 웅장한 규모와 백성들의 반응 등을 자세히 보도하고 있다. 왕실에서 맞는 혼례와 신년 행사는 물론 생일잔치 등도 상당한 규모의 전국적인 행사로 이루어졌다. 1885년 태왕비의 생신을 맞아 행해진 행사에 대한 다음 기록은 이를 잘 말해준다.

초 6일, 태왕비의 생신으로 중국 흡사 및 각 주재 영사들이 모두 상대한 의식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장면은 모두들 이전에 본적이 없었는데, 마치 전국이 미친 듯 들끓는 것 같았다.<sup>4)</sup>

태왕비는 신정왕후 조대비를 말함일 것이다. 조대비의 생신을 이렇게 거국적 행사로 치르던 왕실과 이를 기뻐하며 축하해주던 백성들이 있는 조선이었다. 또한 새해가 되면 왕궁은 모든 문무관원들이 모두 모여 신년 하례식을 열고 수백 명의 의장대가 그 뒤를 호위하는 일대 장관을 연출하였다. 이때 백성들은 이를 구경하기 위해 들뜬 마음으로 광화문 근처로 몰려들어 거리는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며<sup>5)</sup>, 왕궁 신년 축하 연회가 열리면 문무관원과 수행 병사 오륙백 명이 호위하는 장관을 연출하였고 거리는 백성들에게 둘러싸여 넘쳐났다.<sup>6)</sup>

다음 기사는 임오군란으로 피신해있던 민비가 환궁하는 장면을 쓴 기사이다.

양력 9월 12일 조선 서울. 모든 상인들은 생업을 쉬었고, 정돈 된 거리에서는 왕비 민씨의 입성을 영접하였다. 왕비는 조복을 입고 지나갔는데 도로 양옆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구경하며 모두 기뻐하였다. 뜻밖에도 또 다시 옛 왕궁의 의전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수행하는 대열은 정렬되어 엄숙했으며 앞면에 기병 30인은 손에 무기와 깃발을 들고 있었고, 중간에는 붉은 옷을 입은 친병대 행렬과 녹색 옷을 입은 관원들이 있다. 의복이 여전히 당나라 시대의 제도를 보존하고 있다. 후면에는 기마병들이 따랐다. <sup>7)</sup>

군란이 일어나자 민옹식의 집에 도피하여 몸을 숨기고 있던 민비는

4) 『申報』, 『朝鮮經變紀錄』, 1885. 2. 11.

5) 『申報』, 『朝鮮雜俎』, 1886. 3. 10.

6) 『申報』, 『朝鮮近事』, 1884. 2. 29.

7) 『申報』, 『王妃返闕』, 1882. 10. 15.

대원군이 중국으로 압송된 후 다시 환궁을 하게 되는데 이 기사는 장엄한 의식을 갖추고 환궁하는 장면을 기록한 기사이다. 마치 당나라 때의 양실 행렬을 다시 보는 듯하다는 느낌을 적고 있다.

1884년 갑신정변 이후 간소화되었던 의복제도가 다시 원래의 양식으로 되돌아갔는데 “조선의 단이 평정 된 후에 다시 옛 의복제도로 회복하라는 명이 내려졌다. 현재 다시 넓은 도포와 큰소매로 바뀌어 백성들이 모두 기뻐하니 이는 다시 왕궁의 위엄 있는 의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sup>8)</sup>라는 이 기사는 화려하게 준비된 양실행사가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전시효과를 갖추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구왕이 체포 등 공식적인 행차를 하게 되면 구왕이 지나가는 거리의 양 옆 도로에 위치한 초가집이나 시장 거리의 천막 등은 그때마다 완전히 철거되고 거리 정비가 이루어졌다. 비숍(Isabella Bird Bishop : 1831~1904)은 『한국과 그 이웃나라』에서 구왕의 출행 장면을 보려고 모여든 백성들에 대해 이렇게 썼다.

이 광경을 보려고 3-4일 동안 길에서 시골에서 온 사람들과 도시 인구의 반 정도인 약 15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도 왈칵지랄한 소리가 거의 없었다. 조선 사람의 일상생활은 초라하고 허름하였으나 왕은 일 년 내내 하나의 신화였다.<sup>9)</sup>

양실 행차 한 번을 위해 그때마다 매번 도로 변 백성들의 삶의 터전을 허물어야 했고, 백성들은 이를 감내하였다.

이 달 2일, 구왕이 출행을 준비하다가 후에 중지하였다. 백성들이 매우 곤궁한데 출행 시 지나가는 도로의 양 쪽 집들을 모두 제거해야하

8) 『申報』, 『朝鮮經變紀錄』, 1885. 2. 11.

9) I. B. 비숍,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 신북릉 역주, 집문당, 2000년, 61면.

니 백성들에게 부담을 줄까 염려해서 이다.<sup>10)</sup>

후에 경제적 사정을 감안하여 왕실의 체제 행차 등을 취소하기도 하지만, 양실 행차를 간소화하여 거리의 집들을 허물지 않고 행차하는 일은 봉건 왕조에게 있어 생각 할 수 없는 일이었다.

## 2) 과거제도

조선 말기에 이르러 이미 많은 학자들이 과거제의 폐해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 시정을 촉구한 바 있었다. 그러나 과거제도는 갑오개혁 이후 공식적으로 폐지되기 전까지 오히려 더욱 강화되고 남발되면서 심각한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었다.

『신보』에는 당시 조선에서 거행된 과거시험 관련 기사들이 자주 보이는데, 시험의 내용과 주제, 과거시험장의 분위기 등을 상세히 보도하고 있어 그 당시 과거제를 이해하는데 많은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시험 주제와 형식을 두고 『신보』에서는 중국에서는 이미 사라진 고대 중국의 과거제를 다시 보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인다. 아래는 『신보』에서 발췌한 과거 관련 기사이다.

왕제자 대혼례 恩科가 열리니 ‘極天下之孝’를 題로 하여 賦를 짓는 것이다.<sup>11)</sup>

초 1일은 지난해 가을 왕비가 환궁한吉日이다. 초 5일 恩科를 개설하니 구왕이 왕제자를 인솔하여 친히 인정전에 나온다. 時題는 ‘拜獻南山壽’이며, 賦題는 ‘年年頌无窮’ 이었다.<sup>12)</sup>

10) 『申報』, 『東國音書』, 1886. 8. 8.

11) 『申報』, 『東遊記事』, 1882. 6. 15. “王世子大婚恩科, 題爲極天下之孝賦.”

또 2월 초 8일, 왕세자의 열린 살 생일을 맞아 恩科를 실시하였는데, 五福壽爲先이라는 命題로 시 한 수를 짓는 것이었다.<sup>13)</sup> 즉, ‘恩科’라는 이름으로 열린 왕세자 혼례의 시제는 ‘孝’요, 임오군란으로 파신해있던 민비의 환공과 왕세자 생일을 기념하여 실시된 恩科의 시제는 ‘壽’였다. 봉건 왕조에서 ‘壽’는 바로 왕실의 안정과 유지의 기본이기도 하였지만, 특별한 조선 왕실이 자신의 안위와 보존에 대해 얼마나 불안감을 갖고 있었는지를 읽을 수 있게 한다.

1884년 甲申년 8월 19일은 매 庚申己亥년마다 정기적으로 열리던 과거 날이었다. 시험 당일 한 일본 기자가 시험 장소에 직접 가서 보고 쓴 기사에 의하면, 팔도 선비들이 며칠을 두고 모여드니 지팡이를 짚고 걸어오는 모습이 길에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시험장 주변에는 문이 열리기도 전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앉아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고, 마치 별케처럼 잡다하게 온집해 있는 모습들이 마치 번잡한 시장거리를 노니는 것 같았는데, 금지하는 고시가 붙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좌판들을 설치해 놓고 사람들이 큰 소리로 호객을 하며 음식을 팔았고, 시험 장소에는 천막이나 휘장 등을 쳐놓고 그 앞마다 장대에 등롱을 걸어놓았는데, 이 등롱 위에도 각각 부호로 표시를 하여 일종의 자리 번호표 구실을 하게 하였다고 한다.

시제는 ‘漢興任蕭曹之文, 用良平之謀, 騁陸鄜之辯, 明叔孫通之儀, 文武相配’였다.<sup>14)</sup> 이 시제에서 ‘蕭曹’는 漢代 개국공신인 蕭何와 曹參을 가리

12) 『申報』, 「朝鮮消息」, 1883. 9. 27. “初一日爲去秋王妃選官吉日…初五日開恩科取士, 國王率諸世子親題御 仁政殿校士詩題, 拜獻南山壽得壽字, 七律一首, 題題 年年頌无窮不限韻”

13) 『申報』, 「朝鮮近事」, 1884. 4. 4. “世子生日設恩科, 題爲 繼照委天禧賦, 以題爲韻, 七字一句, 如盤聯式, 第二句以繼字落脚, 與第一句對并行寫, 是爲一段, 第四句以趨字落脚, 與第三句對并行寫, 是爲二段, 余仿此, 又開科取士, 只詩一首, 以五福壽爲先命題, 七言十二韻”

14) 『申報』, 「高國試事」, 1884. 11. 13.

키며, 良平 역시 한나라 개국공신인 張良과 陳平으로 『漢書』 「刑法志」 중 “任蕭曹之文, 用良平之謀”에 나오는 문장이다. ‘陸鄜’은 陸賈와 鄜食其로 모두 劉邦을 도와 한나라 건립에 공을 세웠고, 叔孫通은 劉邦이 황제에 오를 때 朝儀를 제정한 인물이다. 이 과거 시험을 두고 『신보』에서는 그 옛날 한나라의 문장을 지금 이곳 조선에서 볼 수 있으니 너무나 신기한 일이라고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또 매해 12월 제주 목사가 바친 柑桔을 상군관 四學儒生에게 나누어 주면서 거행된 일종의 특별 시험인 ‘黃柑’도 실시되었다.<sup>15)</sup>

(1886년) 3월 초 8일, 열린 慶科의 賦題는 民登仁壽堯舜之福<sup>16)</sup>였는데, 이는 『漢書』 「董仲舒傳」에 나오는 “堯舜之德則民仁壽”라는 구절이다. 堯舜은 儒家에서 가장 추앙 받는 성현군주로 仁과 壽 모두 堯舜의 복을 갖는 성현군주의 지도 이념인 것이다.

국왕이 어전에서 실시하는 과거 恩科가 2월 22일 또 실시되었다. 진사 초복과에 時題는 天下而世之修身治國平天下였으며, 賦題는 江沔放漢之間莫不從<sup>17)</sup>이다.<sup>17)</sup> 20일 延試의 題는 如南山之壽 賦였다.<sup>18)</sup>

또한 과거제는 정기적인 시험과는 별도로 왕실에 축하 할 일이 생길 때 그때마다 시행된 것을 볼 수 있다.

왕태비의 尊號가 더 올라가니 특별 慶科를 실시하였다.<sup>19)</sup>

2월 초4일, 왕세자 12세 생일을 맞아 특별 慶科를 여러, 題 億万年敬天

15) 『申報』, 「朝鮮近事」, 1884. 2. 29. “設科應制試 黃柑設科應制試”

16) 『申報』, 「句麗近信」, 1886. 5. 12.

17) 『申報』, 「朝鮮近事瑣錄」, 1885. 5. 3.

18) 『申報』, 「朝鮮近事」, 1885. 6. 20.

19) 『申報』, 「東瀛雜記」, 1886. 4. 1. “王大妃加上尊号特設慶科”



之麻로 臧을 짓는 것이다.<sup>20)</sup>  
 閔妃의 병이 쾌유되어 특별 恩科를 열다.<sup>21)</sup>

“좋은 일이 하나 있으면 바로 恩科를 열었다”<sup>22)</sup>는 기사를 보면 당시 과거시험이 얼마나 남발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또한 孝와 勳, 舞舞의 福 등의 詩題로 응물에 맞추어 詩와 臧을 짓는 과거제를 통해 선발하고자 했던 교육 이념, 그리고 慶科나 恩科 등의 명목으로 남발된 과거제에 수많은 인재들이 필사적으로 매달려 장원급제를 꿈꾸며 공부에 정진했던 학문이 그 건박하게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과연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었나를 생각하게 한다.

### 3. 사회문화 풍습의 고수와 갈등

#### 1) 복식

조선의 복식은 그 옷감의 재료와 양식 자체가 바로 계급적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복잡한 옷의 종류와 격식, 옷감의 사용 제한은 엄격한 신분 사회를 유지하는 척도이기도 하였다. 土庶, 吏胥, 徒隸, 兵丁 등은 비단을 사용하지 못하였으며, 털가죽 옷도 신분에 따라 제한을 하였다.<sup>23)</sup> 귀한 털가죽이나 비단의 사용 뿐 만이 아니라 도포와 모자 종류 등에도 복잡하고도 엄격한 신분제한이 있었으며, 여자 치마의 경우에서도 양반 부인의 속치마는 12폭, 비갈치마는 13폭을 넘지 못하며 일반 서민들은 속

20) 『申報』, 『東瀛記事』, 1886. 4. 18. “二月初四王世子十二生長特開慶科, 題爲億万年敬天之床 臧”

21) 『申報』, 『高麗瑣紀』, 1886. 12. 31. “王因閔妃病愈, 特開恩科”

22) 『申報』, 『高麗續紀』, 1887. 1. 2. “今則一有喜事, 卽開恩科”

23) 『세종실록』, 88권 22년 1월 25일(무진), “신분에 따른 의복을 정하다.”

치마는 10폭, 비갈치마는 12폭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치마폭과 길이에서도 신분의 차이를 두었다.<sup>24)</sup> 개항 이후 복장의 불편함과 신분제도의 혼란 등으로 여러 차례 개선방안이 논의되었지만, 그 개혁과정에서도 많은 반발에 부딪혀 다시 원래 복식으로 돌아가기를 반복하였다.

당시 『신보』 기사에는 조선 옷의 불편함을 실례를 들어 보도한 기사들이 자주 보인다.

고려 사신들이 일본 무관학교를 방문하였을 때, 학교 내의 각종 수련 기구들을 보고는 한 번 사용해보고 싶었으나 넓은 도포와 큰소매 부장으로 매우 불편하였다. 학당 교관이 의복이 이렇게 불편한데 왜 고치지 않느냐고 하며 시범을 보여주자, 고려 관원들은 이 말을 듣고 매우 화가 나서 ‘의복은 우리 국가의 제도이니 어찌 마음대로 양식을 바꿀 수 있소? 국가에서 명령을 발표하여야만 바꿀 수 있는 것이며 우리 마음대로 만들 수 없는 것이요.’라고 말하였다. 무술 시범을 할 수는 있으나 지금 의복이 불편하다며 불쾌해 하면서 그곳을 떠나버렸다.<sup>25)</sup>

일본에서 서양인들이 말 타기 경기를 벌였는데 두 번째 날, 일행이 친히 관람을 왔다. 고려 사신들도 도착하였는데 규정 상 우승자에게는 일본 정부에서 상금으로 은양을 준다고 하자 고려 사신들도 마음이 동하여 경기에 참가하려 하였다. 서양인이 허가하여 고려 사신도 말을 타고 달리기 시작하였지만 큰소매와 큰 모자가 바람을 가로막아 반도 못되어 뒤로 쳐져 경기를 그만두고 말았다.<sup>26)</sup>

넓은 소매의 긴 도포와 큰 것은 옷을 손상한 조선 선비의 상징이었지만, 武를 연마하기에는 너무나 부적합하였던 것이다.

24) 이내창, 『조선풍속사』, 한국문화사, 1998년. 108면.

25) 『申報』, 『高麗近聞』, 1881. 12. 28.

26) 『申報』, 『高麗賽馬』, 1882. 11. 23.

1884년 예조에서는 신문에 다른 규제를 완화하는 사복 제도 변경에 관한 절목을 올리는데, 소매의 넓이와 색깔, 단을 두르는 문제, 비단 사용의 제한, 띠의 규격과 드리우는 길이의 정도, 깃끈의 넓이와 길이, 옷고름의 넓이와 길이까지를 세세히 제시하였다.<sup>27)</sup> 그러나 또한 바로 같은 날 올려진 상소에는 이를 반대하는 상소가 올라와 있다.

대체로 큰 옷과 부츠는 모두 선비들의 윗옷인데 만약에 이런 의복이 없을 것 같으면 어떻게 위엄 있는 차림새를 형성하며 귀하고 찬한 구별을 표시할 수 있겠습니까?<sup>28)</sup>

의복제도의 변경에 관한 일은 중국 정부에도 보고 되어야 하는 일이었다. 1884년 6월3일에 정식 국왕의 교령으로 하달된 이 개정안은 중국 북양대신 李鴻章에 의해 중국 황실에 보고 되었다.

조선이 서양 국가와 외교를 수립한 이후 의복 개정에 관한 논의가 부단히 제기되었습니다. 얼마 전, 민영익이 미국에 출사한 후, 영국과 프랑스를 거쳐 귀국 한 뒤 의복 개정에 관해 결사적으로 주장을 하여 6월 3일 조선 국왕이 정식으로 교령을 하달하였습니다. 여기 그 개정 내용을 조목하여 첨부하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시에 옛 제도를 바꾸려하니 조정 관원들 대다수가 이를 원하지 않았으나 단지 外藩 관원들만 이를 반겨 지지하였는데, 특히 좌우의정 김병국과 홍순목 등의 사람들은 극력 반대하였습니다.<sup>29)</sup>

이 문건에는 변경된 복식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매우 자세히 보고 되

27) 『고종실록』 21년06월03(을해) / 사복 제도를 변경하는 절목을 보고하다.

28) 『고종실록』 21년 06월03(을해) / 의복 제도 변경에 관하여 이유원이 상소하다.

29) 『清季中日韓關係史料』, 『朝鮮國王更定臣民冠服敕諭』, 中國近代史資料匯編 台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編, 1972. 0876 光緒10년6월26일(1884. 8. 16) 1468~1469면.

어 있으며, 그 후에도 제도의 시행 여부에 대한 경과가 여러 차례 중국 정부에 보고 되어 있다.<sup>30)</sup> 또한 외국 복장을 바로 받아들이기에는 그에 따른 저항과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

고려는 조선인이 외국 옷 입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최근 영국 병선 한 척이 일본 長崎에서 조선으로 왔다. 한 조선인은 長崎에 오래 동안 머물러 이미 머리를 자르고 서양 모자를 썼는데 이 사람이 탄 배가 조선에 도착하자 조선인들이 그를 에워싸고 때리면서 그를 일본으로 쫓아버리면서 머리가 길게 자라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돌아오라고 하였다.<sup>31)</sup>

작년 여름에 의복제도의 개혁 명령이 내려졌으나 겨울에 다시 구제로 돌아왔다. 현재는 넓기도 하고 좁기도 하여 일치하지 않는다. 왜냐 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바로 옷을 바꾸기가 쉽지 않으니 이리하다. 의복은 국가 대사는 아니지만 이렇게 저꾸 바뀌니 국력의 낭비이다.<sup>32)</sup>

소스매와 치마의 폭까지도 법으로 규제되던 조선사회에서 복식의 개혁은 만만찮은 저항이 있었고 더구나 가난한 백성들이 새로운 규정에 따라 새 옷을 마련해야하는 부담이 가중되었으니 개혁의 길은 멀고도 험난할 수밖에 없었다.

## 2) 늘이문화

『신보』에는 절기 행사들이 해마다 자세히 보도되어있어 그 당시의 민속

30) 『清季中日韓關係史料』, 『查明朝鮮更定冠服』, 中國近代史資料匯編 台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編, 1972. 0894 光緒10년9월30일(1884. 11. 10), 1492~1493면.

31) 『申報』, 『東瀛雜事』, 1882. 7. 1.

32) 『申報』, 『三韓叢話』, 1886. 1. 20.

놀이와 혼례, 장례 풍습 등을 알 수 있게 한다. 본 글에서는 여러 종류의 기사 중에서 특별히 현재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石戰 놀이에 대해서 고찰해 보려고 한다.

『신보』에 정월 대보름 행사로 해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는 놀이가 ‘木石戰’이다. 즉 돌과 나무 막대기를 들고 노는 놀이라 하여 붙인 이름으로 우리 문헌에서는 ‘石戰’이라 불려지고 있다. 이 놀이는 지금 은 완전히 사라져 전승이 단절되었지만 그 유래가 매우 깊은 풍속이었다. 『고려사』에 보면 우왕 9년(1383)과 10년(1384), 12년(1386)에 우왕이 石戰을 관람하였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있고<sup>33)</sup>, 조선왕실에서도 이 놀이를 즐겨하였다.

상황이 이질을 앓으니, 임금이 풍양궁에 나아갔다. 상황이 서울에 들어가서 석전 놀이를 보고자 하니, 박은이 아뢰기를 “聖體가 피로하실까 염려됩니다.” 하였다. 상황이 말하기를 “석전은 내가 보기를 즐겨하는 것이니 만약 이 놀이를 보고 나면 어찌 병이 나을지는 아는가” 하였다.<sup>34)</sup>

그러나 후일에 가면서 부상자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금지되어 갔는데, 세종 20년 5월 기록에는 “단오 날에 금지된 石戰을 범한 의녕군·서진군을 추방하다”는 기록이 있고, “평양 상원일의 석전을 엄히 다스릴 것 등을 하교하다”<sup>35)</sup> “동대문 밖에서 石戰하는 사람을 금하게 하다”<sup>36)</sup> 등 석전을 금지한 기록들이 여러 곳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금지에도 불구하고 이 놀이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신보』에는 매년 정월 대보름

33) 『高麗史』, 우왕 6년(1380) 5월, 우왕 9년(1383) 4월, 우왕 10년(1384) 5월, 우왕 12년(1386) 4월, 우왕 13년(1387) 5월.

34) 『조선왕조실록』, 세종 3년 5월 2일.

35) 『조선왕조실록』, 영조 47년 11월 18일.

36) 『조선왕조실록』, 성종 4년 5월 6일.

마다 石戰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다.

정월 원소 이후 마을 사람들이 남·북으로 땅을 나누어 모두 나무와 돌을 가지고 격투를 벌인다. 심지어 머리가 터져 피를 흘리는 자도 있는데, 이들은 木石戰과 부른다. 관에서도 이를 금지하지 못하는데, 그곳 사람들이 말에 의하면 기차 시기부터 내려온 풍속이라고 한다.<sup>37)</sup>

어린이 수십 명이 손에 나무 막대기를 들고 머리에는 짚으로 띠를 두르고는, 가장 당당한 모습으로 기량을 겨룬다. 만나기로 약속을 정한 성밖 넓은 공터에 각자 깃발을 세우고 고향을 지르며 점전을 거듭하다가 승패가 가려진다. 승자는 환호하며 돌아다니고 패자는 도망하여 숨어버린다. <sup>38)</sup>

원소절 날이 어두워지면 갑자기 사람들의 큰 함성이 들려온다. 마치 거머쥔에 물이 끓어오르듯, 혹은 산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들려온다. ... 들기에 돌에 맞아 다친 사람, 다리가 부러진 사람도 있다고 한다. 전투는 마지막까지 승부를 가려야만 끝이 나는데 3경이 지나서야 겨우 해산이 되었다. 승리자는 의기양양하여 개전장군과 같이 행세한다. 서로 양쪽으로 조를 나누어 각자 깃발을 세우고 용맹을 가리여 승부를 가린다. 비록 사상자가 발생하여도 지금껏 관가에 이를 고발한 적이 없다고 한다. 국왕이 일찍이 엄금하는 명을 내렸으나 금지할 수 없으니 이러한 풍습은 고치기 어려운 것이다. <sup>39)</sup>

신년 정월 보름 또 木石戰이 큰 거리 작은 골목 등에서 시작되어 밤이 깊도록 함성이 난다. 먼 거리는 돌을 던지고 가까운 거리는 막대기로 치는데 비록 사상자가 발생해도 원한을 갖지 않고 집안사람들도 관여하지 않으니 참 기이한 일이다. <sup>40)</sup>

37) 『申報』, 『朝鮮雜聞』, 1883. 5. 20.

38) 『申報』, 『朝鮮近事』, 1884. 3. 11.

39) 『申報』, 『海國旌錦』, 1885. 3. 24.

40) 『申報』, 『朝鮮雜俎』, 1886. 3. 10.

이 전투불이는 각 마을마다 편을 갈라 깃발을 잡고 반드시 좌옹을 거리는데, 승리한 팀은 개성장군이 된 듯 의기양양하게 마을을 밤세 누비고 다녔다. 설령 사상자가 발생하여도 이에 대해 원한을 갖지 않으며 관가에 고발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신보』에는 이에 대한 기사가 매년마다 보이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피를 흘리며 노는 이 전통불이를 용감하지만 케케묵은 낡은 풍속으로 판거나 식자들 누구도 이 고풍한 풍습을 막지 못한다고 쓰고 있다.<sup>41)</sup>

石戰은 모든 부락마다 젊은이들이 모여 대동단결과 협동심을 키우는 대규모의 전투불이였다. 민족의 단결과 전투성을 상징하는 이 불이는 부상자가 나오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 민족의 단결과 용감성을 키울 수 있는 매우 집단적인 놀이였다. 조선 사회가 안정기에 들어서면서 이 놀이가 금지 되는데는 집단적 놀이가 갖는 사회적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워낙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던 이 풍속은 정부에서도 이를 금지하지 못해서 이를 위반한 자들에 대한 처벌 문제가 조선 왕조실록에도 보인다. 그러나 일제 시대에 들어와 이 놀이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부상자가 발생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지만 사실은 민족적 단결과 용감성을 없애기 위해 금지시킨 것으로 그 이후 석전은 우리 전통문화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신보』에는 정월대보름에 이 석전 놀이를 비롯한 풍성한 놀이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는 양력이 생기기 이전에는 보름달이 민속학적으로 설날보다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이었던 같다. 달맞이는 보름 행사의 절정을 이루어 남녀노소가 예쁜 옷을 차려 입고 달을 맞으러 나왔다. 여인들은 등을 들고 달이 밝을 때까지 시내를 물러다니면서 달놀이를 하였고 남편들도 이를 단속하지 못하였다고 하는데, 즉 불기운을 맞이하

41) 『申報』, 『游國碎錦』, 1885. 3. 24.

는 것이었다.<sup>42)</sup>

### 3) 종교 활동

#### (1) 불교

조선은 유교의 나라였다. 다음은 쇠퇴한 조선 불교에 관한 『신보』 기사이다.

일본의 불교는 이전에 고려에서 전래된 것이다. 일본인은 고려의 불교 승상이 일본보다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조선에 와서 보니 이곳의 불교는 이미 극도로 쇠락하였다. 이는 유교 승상으로 인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이다.<sup>43)</sup>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불교가 금지되었지만 민간에서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았으며 4월 8일은 경축일로 지켜졌던 것을 알 수 있다.

4월 8일 이를 전부터는 대나무 장대에 종이 등을 걸어서 파는 사람들이 거리 골목마다 보인다. 초 8일 저녁이 되면 집과 집포 문 앞마다 불을 밝힌 등을 걸어놓고 축회를 한다. 어떤 집은 등을 줄줄이 엮어 이어서 마당 한 가운데 장대에 높이 걸기도 한다. 폭죽 터트리는 소리와 악기 소리가 끊이지 않으며 나와 노는 여인들이 아주 많고 돈이 있는 집안에서는 기녀들을 불러 놀이와 춤을 하며 밤을 밝힌다.<sup>44)</sup>

그러나 승려가 성인으로 들어오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이를 위반

42) 『申報』, 『朝鮮瑣聞』, 1883. 5. 20.

43) 『申報』, 『高麗近聞』, 1882. 10. 6.

44) 『申報』, 『朝鮮雜誌』, 1884. 5. 30.

한 승려가 침수되었다는 기사가 여러 차례 보인다.

국기에 금령이 있어 승려는 상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며, 위반하면 목을 자른다. 최근 한 승려가 날이 어두워지가 사람들과 섞여 상안으로 들어갔는데, 이는 단지 평생 보지 못한 상안들을 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모험을 한 것이었다. 그러나 발각되어 관부로 잡혀 보내져 바로 목이 잘려 사람들에게 친시되었다.<sup>45)</sup>

한 중국 승려가 5월 초 배를 타고 인천에 도착하였다. 經書와 緣簿를 들고 이틀간을 머물다가 서울로 가서 중국 상무대신을 만나보기를 원하였다. 조선의 규정 상 승려는 상안으로 들어 갈 수 없으며 위반 시 침수한다는 금령이 있다. 장 안 백성들이 이 중을 보고는 매우 이상하게 여기자 중국 관원이 바로 그를 떠나도록 명하여 인천으로 돌려보내었다.<sup>46)</sup>

조선 시대 승려의 성문 안 출입을 금지한 기록은 숙종 28년(1712)과 정조 2년에 법으로 이를 완전히 금지하였다는 기록<sup>47)</sup>을 찾아 볼 수 있는데, 성문 안 출입을 한 승려를 침수하였다는 이 기사들은 불교에 대한 규제가 그때까지도 매우 엄격하게 지켜졌음을 알 수 있게 한다.

## (2) 관제 승배신앙

이 시기 왕궁에서 행해진 종교 활동 중에서 특이한 점은 중국 최고의武神으로 숭배되고 있는 關羽에 대한 제례 행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다는

45) 『申報』, 『高事續錄』, 1886. 12. 7.

46) 『申報』, 『三韓叢話』, 1886. 8. 1.

47) 『禁補受教輯錄』, 『禁制』, (조선총독부 중추원편지, 『李朝各種文獻風俗關係資料撮要』, 민수원, 1984. 171면). “(1712년) 嚴禁僧尼進入漢城.”  
『秋官志』, 朴一源編, (『李朝各種文獻風俗關係資料撮要』, 133면). “今上(正祖)二年, 禁止僧尼不得進入漢城城門. 凡容許僧尼進城者都要按律法發配.”

점이다. 용감하고 충성스런 군인의 화신인 무장 관우를 軍神으로 추앙하여 받드는 관제 승배의식은 임진왜란에 참전하였던 명나라의 요구에 의해 조선에 관제묘가 만들어지면서 시작된 것으로 지방에서는 민간신앙으로 전파되기도 하였다. 1598년, 明軍의 요구에 의해 南關王廟가 세워지고 선조가 친히 관왕묘에 나아가 분향·제배 의식을 행하였으며, 1599년에는 현재의 종로구 승인동에 있는 東廟가 건축되었다. 이 공사를 하는 동안 왜란으로 황폐해진 국기재정과 백성들의 노역이 가중되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선조는 많은 비판들 속에서도 동묘 건립에 찬성했는데, 이는 명나라의 요구에 아쩔 수 없이 부응한 측면도 있었지만 전란으로 황폐해진 국기를 바로잡기 위해 영험이 있는 軍神 관제를 숭배하는 관왕묘를 세워 武神에 의지하려했던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 관제묘에 대한 관심은 미미하여 국왕이 친히 참배한 예는 조선왕조실록에서 몇 예에 지나지 않는데, 이 시기에 이르러 갑자기 관제에 대한 제례의식이 강화된 것을 볼 수 있다.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시 왕궁을 나와 피신을 해야 했던 왕실로서는 신변을 지켜줄 수호신이 필요했고 軍神으로 영험이 있다는 관제에 의지하려고 하였다. 고종은 1883년 왕명으로 宋淵에 北關王廟를 세우게 하고 제례를 올리는데 이는 민비가 임오군란으로 피신해 있을 당시 민비의 환궁을 예언하여 환심을 샀다는 무덤이 자신이 관우의 딸이니 그의 사당을 지어 모셔야 된다는 청을 받아들여 명문동 흥덕사 지리에 사당을 지은 것이 北廟이다.<sup>48)</sup> 다 음은 이에 대한 『신보』의 기사이다.

한 노파가 자신을 관제의 셋째 딸이라 칭하며 미래의 일들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사람들이 그를 믿어 신과 같이 받든다. 국왕이 그를 위해 북문밖에 사당을 건립해주었는데 1만금이 다 들었다. 국왕이 친히 가

48) 종로문화원, 『東廟자료집』, 1997. 160~161면.

제사를 올리고 무릎을 꿇어 예를 하니 대단히 경건하게 정성을 드린 다.<sup>49)</sup>

『고종실록』에도 세지가 이곳에서 예를 올리고 수행원들에게 상을 내렸다는 기록이 있다.<sup>50)</sup> 관제묘에는 중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현재 3000 중국 군사가 서울에 주둔하고 있다. 그들은 성내에 주둔하고 기타 나머지는 각각 나뉘어 남문 밖과 관제묘에 주둔하고 있다, 이 묘는 明朝 시기에 건립된 곳으로 현재는 屯營 요지이다.<sup>51)</sup>

조선 군관을 평정한 군대가 해산되어 돌아갔지만 아직 慶軍 六營은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데 만약의 사건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慶軍은 즉 吳長慶 軍門이 거느린 군인이다. 吳 軍門 자신이 대령한 副營은 東門 내에 주둔하고, 正營은 동문 밖 관제묘에 주둔한다. 左營은 동문 밖에, 前營은 남문 밖에, 中營은 왕궁 후면에 있다. 後營은 동문 밖 三道橋에 있다. 군령은 이전에 비해 더욱 엄격하다.<sup>52)</sup>

불안한 정국에서 왕실은 신변을 지켜줄 군대와 수호신이 필요했기 이 北廟에 몸을 숨기기도 하였다.

北廟는 성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한적하고 인적이 드문 곳이다. 작년 국왕이 北廟에 피신해 있을 때 신령의 가호를 받았기 때문에 국왕은 특별히 북묘 관제에게 붉은 비단 금화포를 바쳤으며 관원을 파견하여 매일 제를 올리게 하는데 여름과 겨울동안에도 쉬지 않는다.<sup>53)</sup>

49) 『申報』, 『朝鮮近事』, 1884. 4. 5.

50) 『고종실록』, 20년10월21일, 26일 “북묘에 가서 작헌제를 거행하였다. 세자도 따라가서 예를 행하였다. 북묘에 행차하였을 때 배중한 세자 시강원과 세자 의위사 이하 관리들에게 차등 있게 상을 주었다.”

51) 『申報』, 『高專郵音』, 1882. 9. 18.

52) 『申報』, 『津沽近信』, 1883. 5. 8.

53) 『申報』, 『朝鮮雜錄』, 1885. 12. 10.

민비가 거주하는 궁전이 매우 불안하여 매일 징소를 옮겨 다니나 여전히 불안하여 北廟로 가서 關聖帝의 영험을 빌려 불길한 징조를 없애려 한다고 한다.<sup>54)</sup>

천염병이 들고 나라의 어려운 일이 끊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왕실은 武神 관운장에게 신령의 보호를 빌었다.

국왕은 역질이 유행하자 근심으로 예를 태우며 네 곳의 關廟에 등불을 밝히게 하고 관원을 파견하여 제사를 지냈다.<sup>55)</sup>

나라에 우환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왕실에서는 관제묘에 정성을 드렸다.

민비의 병이 쾌유하자 관원을 각 關帝묘에 보내어 제를 올리게 하고 신령의 보호에 감사하였다. 동, 남, 북, 세 곳 關廟를 다시 수리하니 이는 민비가 쾌유하여 이렇게 한 것이다.<sup>56)</sup>

13일은 關王의 탄신 일로 국왕은 친히 關廟에 왕림하여 제사를 지냈다.<sup>57)</sup>

관우는 용감하고 충성스런 무장으로서 중국인들에게 기복신앙에서 최고의 자리를 점하고 있었다. 어지러운 나라 형편과 신변의 불안 속에서 왕실은 중국 군대가 추앙하는 관제에게 기대보려는 심리가 작용하였던 것이다.

54) 『申報』, 『東藩巡信』, 1885. 12. 4.

55) 『申報』, 『朝鮮大疫』, 1886. 9. 17.

56) 『申報』, 『高麗瑣紀』, 1886. 12. 31.

57) 『申報』, 『朝鮮近事』, 1885. 8. 9.

## (3) 무속 신앙

또한 무속 신앙이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어 무당 역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1882년 고종에게 시국을 수습할 시급한 대책으로 올려진 상소 20가지 중에 "열여덟 번째는 무당을 금지하고 액막이를 없애는 것이며, 열아홉 번째는 사찰을 금지하고 승려들을 귀농 시키는 것"<sup>58)</sup>이 들어 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유난히 전염병도 기승을 부려 사회적 위기의식은 더욱 고조되었고, 왕실에서는 관제모와 함께 무속 신앙에도 의지를 하게 되어 厲祭를 지내거나 액막이 제를 할 것을 지방 관원에게 지시하기도 하였다. 『고종실록』에는 전염병으로 백성들이 죽어가니 액막이 제사를 지낼 것을 건의하자 승인하였다는 기록들이 1886년에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해에 특별히 전염병이 더욱 심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sup>59)</sup> 전염병은 주로 천연두와 여름철에 유행하던 콜레라 등의 수질성 전염병으로 한 마을에 역질이 들면 온 마을이 거의 폐죽음을 당하여 농사를 지을 사람도 없을 정도였다. 이로 인해 조세를 건을 수 없어 여러 차례 세금을 연기해 주기도 하였다.<sup>60)</sup>

『신보』에는 민간에 성행하고 있는 미신과 무당들의 곳거리 외에도 왕실에서 전염병을 근심하여 굿을 하거나 액막이 제를 올렸다는 기사가 많이 보인다.

58) 『고종실록』, 19년 7월 25일.

59) 『고종실록』, 23년 6월 22일, "지금 전라 감사 윤영신이 올린 장계를 보니, '본영과 각 읍에 전염병이 돌아 계속 사람이 죽어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이런 때는 厲祭를 지낸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전례대로 제사를 지내도록 포당에서 지시를 받아 처리하게 하기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전염병 기운이 성하여 백성들의 고통이 아주 급하게 된 조건에서 액막이 제사를 지내는 절차를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따로 여제에 쓸 향과 축문을 빨리 내려 보내도록 애조에 지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60) 『고종실록』, 23년 10월 18일, "의정부에서 기재부 등지의 조세를 바치는 기간을 연장할 것을 제의하다."

궁중에 역질이 도니 국왕이 염려하여 舞師를 불러 굿을 하게 하였다. 징 소리가 궁 밖까지 들리니 민간에서도 이를 따라한다. 이 나라는 무속이 매우 성행을 한다.<sup>61)</sup>

역질이 유행하자 국왕은 궁문 밖에 높은 동대를 설치하고 등들을 달아 병풍처럼 진열해 놓아 매우 화려하다. 국왕이 친히 백관들을 데리고 등대에 와서 백성의 복을 비는 제를 올렸다.<sup>62)</sup>

성내 담산 정장에 묘가 하나 있는데 변액에 '團師'라 되어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조선인 한 사람이 죽은 후에 仙佛이 되었다고 한다.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복을 빌면 아주 영험하다고 한다. 최근에 역질이 돌아 매일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 듣기에 왕비도 中使를 보내어 산에 올라 敎祭를 빌었다고 한다.<sup>63)</sup>

역질이 계속해서 창궐하고 세상이 흉흉하니 귀신에 대한 두려움도 커져서 귀신에 관한 갖가지 소문들과 사건들도 많았다. 역질이 돌면 酒店들도 모두 문을 닫고 감히 손님을 받지 못하였고, 특히 밤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는데 이는 癡疫 귀신일까 두려워해서<sup>64)</sup>라는 이야기며, 또한 크고 작은 거리에서 한 밤중이면 귀신들이 나타난다고 사람들이 민어서 밤에 순찰을 도는 병정들이 일부러 이렇게 사람을 놀라게 하여 행인들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이용하기도 하였다<sup>65)</sup>는 기사 등등이 당시 조선 사회의 흉흉했던 사회 분위기를 전해주고 있다.

1884년도 『신보』의 1면 논설에서는 조선에서 시급히 개혁해야 할 과

61) 『申報』, 「東國通書」, 1886. 8. 8.

62) 『申報』, 「朝鮮大疫」, 1886. 9. 17.

63) 『申報』, 「東國采風」, 1886. 10. 30.

64) 『申報』, 「高麗近事」, 1882. 4. 14.

65) 『申報』, 「高麗輯錄」, 1886. 2. 14.

제 중 천연두로 죽은 어린이 시체를 나무 위에 매다는 풍속<sup>66)</sup>의 개선을 들고 있다. 마머가 유행할 때는 땅을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타부가 있어 草墳을 했다는 기록이 있고, 마머로 죽은 시체를 나무 위에 올려놓았다는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sup>67)</sup> 현재 이에 대한 기록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시급히 고쳐야 할 과제에 들어있는 것을 보면 당시에 천연두로 죽은 어린이의 시체를 나무에 매다는 풍속은 비교적 널리 시행되었던 것 같은데, 이는 사실 위생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당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전염병의 문제와도 직결되어있는 문제였다.

#### 4. 사회 모순의 심화

##### 1) 전통적 사회 체제의 고수와 도전

오랜 세월을 유교국가로서 나라의 문을 닫고 있던 조선에 첫발을 디딘 외국인들에게 조선은 역동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나태하고 게으른 백성들과 부패한 관리의 나라였다.

많은 사람들이 손에 담뱃대를 들고 한가로이 게으른 모습이다. 1년 수 입은 겨우 먹을 양식이면 족하고 더 이상의 추구가 없다. 듣기에 이 나라에서 세도기도 아닌 사람이 집안에 많은 돈이 있으면 관청의 추징을 당하게 되어 백성들은 재물을 축적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후 시나 화를 자초하게 될까 염려해서이다. 많은 사람들이 손에 담뱃대를 들고는 서너 명 씩 모여서 하루 종일 놀며 거닌다.<sup>68)</sup>

19세기 말 조선을 방문했던 서양인들이 남긴 기록들에서도 조선에 대한 인상은 대체적으로 비슷하다. 비숍은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나는 서울을 방문으로 조사하면서 그 왕궁과 빈민가를, 빛바래 가는 왕조의 광휘와 필설로 형용할 수 없이 궁핍한 삶을 보았다. 나는 또 목적 없이 빈둥거리는 군중들과 그들의 중세적인 행렬을 보았다.<sup>69)</sup>

새로운 변화에 대한 거부로 상징되는 중세풍의 행렬과 목적 없이 떠도는 나태한 군중, 바로 조선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던 가장 큰 장애는 가혹한 신분제도와 국가체제의 문제였다. 조선사회의 신분제도가 얼마나 가혹하였는지를 다음 기사는 잘 보여준다.

양반들은 하인들에 대해 매우 가혹하다. 거리에서 양반이 객과 이야기 할 때, 하인에게 길 위에 앉드리게 하고는 그 등위에 앉아서 담화를 나눈다. 말을 탈 때도 하인을 앉드리게 하고는 그의 몸을 밟고 말을 탄다.<sup>70)</sup>

조선의 신수가 이름답고 사람들도 매우 영민하나, 단지 신분제도로 인해 인제들이 가로막혀 있다. 신분이 미천한 자들은 과거에 오르지 못 하나 이로 인해 나태해지고 소일할 일이 없어 종일 거리에서 한가로이 노닐고 있다.<sup>71)</sup>

외국인들이 조선 백성에게 갖는 인상은 비교적 긍정적이다. 다만 부패한 관료와 신분제도가 백성들의 나태와 인일을 조정하고, 사회의 새로

66) 『申報』, 『續錄朝鮮治安策』, 1884. 4. 22.

67) 김동욱 외, 『한국민속학』, 새문사, 1988년, 146~148면.

68) 『申報』, 1882. 10. 18.

69) I. B. 비숍 지, 이인화 역,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살림, 1994. 49면.

70) 『申報』, 『續錄朝鮮風土記』, 1884. 4. 1.

71) 『申報』, 『朝鮮風俗瑣記』, 1884. 2. 13.



은 동력을 막는 요인이라는 지적을 자주 볼 수 있다.

1886년 고종의 초칭으로 힐버트(H. B. Hulbert)와 함께 초빙되어 옥영공원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길모어(George William Gilmore)는 조선 사람들의 나태에 대해 “조선 사람들의 가난과 나태를 이야기 할 때 그것은 그들의 기질이 낳은 결과라고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백성들이 일할 어떠한 동기도 갖지 못하고 있음을 독자들은 상기해야 할 것이다. ... 그들의 게으름이 천성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노력의 과실들이 그들이 대항할 수 없는 부패하고 탐욕스러운 관리들에 의해서 갈취 당하기 십상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무관심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다.”<sup>72)</sup> 라고 쓰고 있다.

조선 사람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신보』에서 자주 보인다. 조선은 산천이 아름답고 사람들도 우수하며 영민하다. 서양 기계들을 보면 어떤 이들은 매우 빨리 그 원리를 이해하며, 서양 언어문자를 공부하는 이들도 역시 아주 빨리 이를 통달한다.<sup>73)</sup>

즉, 당시 조선의 발전과 미래를 가장 가로막고 있는 것은 뿌리 깊은 신분제도와 農工商業의 천시였던 것이다. 천민들은 비인간적 천대를 속명으로 감내해야 했고, 과거에 나가지 못하는 남자들은 노동하지 않고 부녀자들의 노동에 기생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으니 신분제도와 農工商業의 천시는 바로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소였다. 조선 백성들의 무기력과 나태함은 본래적인 ‘기질’이기보다는, 당시의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 구조로 형성된 결과라는 사실은 외국인들의 글에 일관적으로 호르고 있는 시각이기도 하다. 즉 그것은 오랜 관습과 제도의 문제였던 것이었다.

조선 내부에서도 개혁을 위한 노력은 시행되었다.

왕이 말하기를, 지금까지 보다 더욱 새로이 나라를 다스리려면 반드시 먼저 편견을 타파해야만 한다. 신분의 고귀함을 따지는 기풍이 오패되었다. 양반의 지위는 높고 천민은 어떠한 앞날도 없으니 이에 대해 내 매우 동정을 한다. 지금 외국과 통상을 하게 되었으니 양반이나 일반 백성이나 모두 상업으로 치부를 할 수 있다. 農工商의 지체라도 확고에 들어갈 수 있으니 몸후로 과거는 단지 학습에 채주가 있는 지 여부만 보고 출신의 귀천은 따지지 않도록 한다.<sup>74)</sup>

최근 소식으로 조선국왕이 귀족문벌제도의 폐지를 명하고 경비철약의 명령을 이미 실행하였다 한다.<sup>75)</sup>

조선의 노비는 지손 대대로 그 신분이 변하지 않는다. 최근에 국왕이 명하기를 모든 노비의 신분은 후대에 다시 계속되지 않는다고 명하였다.<sup>76)</sup>

1884년도 『신보』의 1면 논설에서는 조선에서 시급히 개혁해야 할 정책으로 첫째 노비에 대한 속박, 둘째 과부의 재혼 금지와 탈취 문제, 셋째 부녀자가 노동해서 남편을 부양하는 제도, 넷째 조혼금지를 들고 있다.<sup>77)</sup> 조혼 문제 역시 혼인이란 제도를 통해 어린 며느리를 데려와 부녀자의 노동력을 수탈하는 합법적인 제도였으니 조선 남자들의 게으르고 나태함은 사회제도에서 기인한 당연한 결과였다.

서울에 살고 있던 한 서양인은 『上海字林西學報館』에 “조선이 서양 기계를 사들이고 기술을 초빙하여 서울 창의문 북쪽에 제조국을 설립

74) 『申報』, 「朝鮮王諭人道四都」, 1883. 3. 27.

75) 『申報』, 「日本雜聞」, 1883. 5. 1.

76) 『申報』, 「東藩雜記」, 1886. 4. 1.

77) 『申報』, 「續錄朝鮮治安策」, 1884. 4. 22.

72) George William Gilmore 저, 신복룡 역, 『서울 풍물지』, 집문당, 1999. 30면.

73) 『申報』, 「朝鮮采風」, 1886. 1. 13.

하였으니 더욱 실사구시로 준비하고 진흥시키면 해외로 강대하게 일어설 수 있을 것”<sup>78)</sup> 이라는 긍정적인 기사를 써 보내기도 하였다.

또 『신보』에 인용 보도 된 일본 『西報』 기사에 “고려의 토지와 인민, 物産은 일본에 못하지 않아 국가를 잘 다스리고 이전의 악습들을 철저히 고치며, 내정을 쇠신하고, 외국과의 교류를 공고히 하면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sup>79)</sup>라는 글을 보면, 다행된 조선이 당면했던 문제들을 철저한 개혁으로 쇠신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열려있었다. 일본 측 시각에서도 그 가능성은 인정되고 있었던 것이다.

## 2) 외국인 문제

오랜 세월 동안을 폐쇄된 사회로 살아왔던 조선 백성들에게 외국인은 기이함과 호기심, 그리고 두려움과 경계의 대상이었다. 외국인을 보면 신기한 구경거리라도 만난 듯 따라다니며 구경하고, 혹은 무서움에 도망하고 때로는 조롱하고 멸시하는 조선인들의 다양한 형태들이 당시 조선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는 이 또한 기사거리가 되었다.

현재 고려에서 일본인들이 내지를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허락하였다. 고려 부녀자들이 일본인을 보아도 무서워 도망가지 않으니 이는 이전 상황과 매우 큰 변화이다<sup>80)</sup>

다섯 명의 일본인이 어선을 타고 경상도 해안가를 유람하며 놀고 있었는데, 이곳 주민들이 그들을 보고는 희롱하며 모욕하였다. 다리 위

에 서서 망요를 하며 놀리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배를 향해 불과 나뭇가지를 던지었다. 일본인들이 배를 물에 대고 물러오자 사람들이 모두 도망하였는데, 그중 蘇守權이라는 노인이 걸음이 느려 미처 도망 못하여 일본인들에게 맞아 죽었다.<sup>81)</sup>

일본인을 보면 여자들은 무서워 도망하고 남자들은 함께 물러와 놀리며 조롱하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분위기였다. 그러나 중국인에 대해서는 비교적 호의적인 분위기였다고 『신보』는 전한다.

華人을 만난 남자들은 모두 다투어 주위를 둘러싸고 구경을 한다. 여인들은 華人을 만나면 무서워 다투어 도망을 친다. <sup>82)</sup>

중국인들이 큰 거리를 돌아다니려면 수십 명의 사람들이 뒤에 따라온다. 가끔 그들에게 말을 건네면 모두 서로 다투어 대답을 하는 모습이 친근함을 표현하려는 것 같다. 점포나 노점에 도착하면 주위에 물려 있던 사람들이 비켜섰다가 곧 다시 주위에 모여든다. 시간이 지나니 이는 중국인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것이며 일부러 곤란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sup>83)</sup>

그러나 이렇듯 외국인을 만나면 호기심과 경계심을 동시에 나타내곤 했던 순진한 조선 민중들에게 외국인은 사회적 범죄와 풍습을 문란하게 하는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 (1) 중국인 游勇 문제

일반적으로 외국 문물의 수용 과정에는 많은 혼란이 뒤따르게 되지만,

78) 『申報』, 「論朝鮮近事」, 1883. 8. 15.

79) 『申報』, 「譯西報論通商高麗」, 1882. 6. 3.

80) 『申報』, 「高麗近聞」, 1882. 5. 19.

81) 『申報』, 「三韓叢話」, 1884. 12. 26.

82) 『申報』, 「東遊紀餘」, 1883. 6. 18.

83) 『申報』, 「續錄朝鮮風土記」, 1884. 4. 1.

개항 이후의 조선은 정치적 혼란과 더불어 더욱 심각한 사회적 병폐 현상들이 밀려들어와 지리를 잡게 되었다. 그중 가장 심각한 현상은 중국에서 조선에 파병되었던 병사들이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조선 각지를 떠돌며 온갖 범죄의 온상이 된 것이었고, 일본 방면에서는 일본의 기생 문화 등의 퇴폐문화가 밀려들어온 일이었다.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등 정치적 이유로 조선에 왔다가 귀국하지 않고 불법으로 남아 생계를 위해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던 청나라 병사들을 『신보』에서는 ‘游勇’이라 지칭하고 있는데 游勇으로 발생되는 사회 문제에 대한 기사가 거의 매일 이어지고 있다. 기사의 대부분은 游勇의 범죄행위에 대한 소식과 중국 측에서 강력하게 군율로 다스리며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고려 주둔 중국 군영에서 병정들에게 고시하기를, 총을 들고 야간에 도주하여 부녀자를 희롱하거나, 재물을 강탈하는 자, 백성들 집에 난입하는 자는 모두 목을 자른다. 야편을 피우거나 술을 폭음하는 자는 귀를 자른다. 양기부녀를 보고 놀리는 자, 물건을 매매하고 물건을 훔치는 자, 규율을 준수하지 않는 자는 곤장으로 다스린다.<sup>84)</sup>

吳軍門(吳慶長)에서 고시하다; 본 軍門이 병사들을 통솔한지 30년 동안 기율을 엄히 지켜왔다. 현재 군 사병들이 나쁜 일로 백성들을 괴롭힌다고 하니 내가 이러한 악행에 매우 통한을 느낀다. 얼마 전 南陽府 병사가 심문을 받고 침수되고 이 군영의 千總 曹正明이 해직되었다.<sup>85)</sup>

이러한 游勇들의 범죄는 갑신정변 이후로 가면서 매우 심각해지고 游勇의 숫자도 더욱 많아져 중국 군부에서는 형벌을 엄하게 하여 죄를 지은 자는 침수하고 떠돌아다니는 자들은 강제로 잡아 송환을 하는 노

84) 『申報』, 『高麗雜聞』, 1882. 1. 21.

85) 『申報』, 『辦理朝鮮 吳軍門告示』, 1882. 10. 6.

력을 하지만 游勇의 수와 범죄는 더욱 늘어만 갔다.

袁世凱가 游勇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엄히 금지하였다. 최근 이미 수십 명을 체포하여 원래 부서로 돌려보내었다. 한 범인이 밤에 담을 넘어 도망갔다가 그 다음 날 남대문 일대에서 잡혀 목이 잘려 인 천으로 보내져 장대에 걸려 군중들에게 전시되었다.<sup>86)</sup>

游勇들은 특히 여자 어린이들을 유괴하여 중국에 팔아 넘겼다. 이로 인해 중국으로 유괴되어 팔려간 여자들이 매우 많았으며 아이 부모들이 관가에 와서 울며 호소해보지만 별 방법이 있을 리 없었다. 『신보』에는 이러한 사건 기사 외에도 1면 논설 면에 游勇 문제에 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됨을 강조한 논설들을 여러 차례 실고 있다. 조선 내 중국인들을 수시로 조사하여 성분을 가려 할당된 자들은 강시를 계속 하도록 하려고 하여 할 일 없이 떠도는 자들은 반드시 반국으로 돌려보내도록 할 것 등을 주장하고 있다.<sup>87)</sup> 몇 차례에 걸쳐 游勇를 검거하여 중국으로 송환하고 나니 거리가 매우 인정되어 백성들이 칭찬하였다는 소식과 여전히 적장은 游勇들이 교외에 은둔하여 중국관원의 감시가 소홀해지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일을 저지르곤 하였다는 소식 등이다. 游勇에 대한 근본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으니 다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피하기 어려웠다. 적은 자본으로 장사를 하거나 상업을 목적으로 조선에 왔던 華商들도 돈이 떨어지면 游勇의 무리에 합류하여 무리를 지어 거주하면서 악탈을 일삼았다. 적은 점포를 열어서 소매업을 하는 이들을 ‘游商’이라 칭하였으나 자본이 모두 떨어지고 나면 다시 游勇이 되었다.<sup>88)</sup>

중국 정부는 병사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고, 또 귀국하는 병사

86) 『申報』, 『韓國采風』, 1886. 1. 14.

87) 『申報』, 『論撈販高麗幼孩事』, 1886. 12. 11.

88) 『申報』, 『高麗瑣記』, 1886. 12. 31.

들을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매우 미참한 처지에 놓여있었다. 강제로 송환되는 游勇들은 중국 선박에 실려 가면서도 세력을 합해 배 위에서도 단동을 부렸고, 심지어 육로로 중국으로 돌아가는 游勇들의 형색이 너무나 미참하여 조선 관원들이 이들을 불쌍히 여겨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심문하지 않을 정도였다고 한다.<sup>89)</sup> 검거되지 않고 남은 游勇들은 낮에는 숨었다가 밤이 되면 나와 활동을 하였고, 도박장을 열거나 여자들이들을 유괴하여 팔아 넘겼으며, 중국 常憲이 이들을 잡아 칼을 썰어 백성들 앞에서 돌리고 본국으로 돌려보내었다는 기사가 끊이지 않는다.<sup>90)</sup> 游勇들은 조선에 도박과 이편을 퍼뜨리는 주범이었다.

작은 장사를 하는 중국인들은 버는 돈이 아주 적어 도박장을 차리곤 한다. 중국 관원이 이들을 잡아 목에 형틀을 씌우고 군중에게 전시한 후 전부 중국으로 돌려보내었다.<sup>91)</sup>

중국 商憲이 游勇 몇 명을 잡아 목에 형틀을 씌어 군중에게 전시하였는데, 사방형 나무함을 몇 박이 씌었다. 이는 일종의 도박 기구인데 이들을 백성들에게 공개한 후 본국으로 압송하여 조선에서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하였다.<sup>92)</sup>

인천에 어떤 담배집(烟館)이 여러 곳 있는데 모두 游勇들이 개설한 것이다. 현재 모든 집마다 조사하여 잡아들이고 있어 烟管이 모두 문을 닫았다. 그 근본이 제거되지 않아 혹시나 나쁜 일들이 생길까 염려된다. <sup>93)</sup>

89) 『申報』, 『高事輯錄』, 1886. 2. 14.

90) 『申報』, 『朝鮮雜誌』, 1886. 12. 6.

91) 『申報』, 『朝鮮雜誌』, 1886. 12. 6.

92) 『申報』, 『韓城紀俗』, 1886. 12. 16.

93) 『申報』, 『高麗雜記』, 1887. 1. 1.

『申報』 기사에 의하면 그때까지 조선에는 전갈(鰐子)이 없어 아무도 전갈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는데,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따라 들어와 조선에 퍼졌다고 한다.<sup>94)</sup> 전갈에게 물린 사람들이 크게 울며 아파하였는데, 游勇을 마치고 이 전갈과 같이 중국에서 들어와 백성들을 괴롭히는 암적인 존재로 여기었다.

## (2) 일본인 문제

『신보』에 실린 일본인들의 사회 문제는 주로 일본기생들이 많이 들어와 私娼이 범람하고 남녀가 함께 묵욕하는 유행이 생기는 등, 난잡한 풍기로 백성들의 반감을 산 이야기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인천에 일본 妓館이 있는데 매일 저녁에 술을 팔며 가격도 저렴하다. 최근 조선 娼妓들도 인천 해안에 방을 얻어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일본 妓館이 한산해졌다고 한다. 서울 부근에 일본인이 妓館을 건축하자 부근에 私娼들과 소수의 양민들도 이곳으로 옮겨갔다.<sup>95)</sup>

남산 아래에 일본 반점에서 일본 기생들을 두고 술을 파는데 오는 이들이 매우 많았으며 조선인 중에도 일본 기생을 사서 즐기는 자들이 늘어갔다.<sup>96)</sup>

妓館이 상행하고 일본인들의 향락 행위가 더해지면서 긴장과 갈등도 더해졌다. “이런에 향락을 좇던 일본인들에게 주민들 수십 명이 모여 들어 들을 던지자 일본인들이 머리를 감싸고 쥐새끼처럼 도망치니 신었던 나막신들이 거리에 뒹굴었다”<sup>97)</sup>는 이야기며, 일본 상인들이 이런에

94) 『申報』, 『高麗雜記』, 1887. 1. 1.

95) 『申報』, 『韓城紀俗』, 1885. 6. 23.

96) 『申報』, 『高麗近信』, 1886. 1. 23.

97) 『申報』, 『平壤鴻音』, 1885. 12. 13.

부너지를 허용하자 부근 주민들이 모두 몰려나와 그 일본 상인들을 때렸다는 기사 등이 넘쳐난다. 일본인들에 대한 감정이 더욱 나빠지자 인천의 일본 목욕탕에서는 남녀가 섞여서 사용하던 욕탕을 나무판으로 남녀를 분리하기 시작하였다고 하고<sup>98)</sup> 일본 병사들이 서울에 들어와 유람을 할 때는 해가 떨어지기 전에 무리를 이루어 서문으로 나가는데, 이는 성난 군중들과 부딪히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sup>99)</sup>

### 3)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동요하는 사회질서

급격한 사회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심각하게 파생되는 사회적 모순과 고통은 가난한 백성들의 몫이었다. 계속된 흉년과 부패한 관리의 수탈로 목숨조차 연명하기 힘들어진 백성들은 도둑으로 변해갔고, 일본인들이 들어오면서 만들어 낸 음란한 상문회는 술집과 사창의 범람으로 양가집 여인들을 기생과 유랑녀로 몰아갔다. 또한 중국 游勇들이 떠돌아다니며 세위농은 도박장과 烟館으로 도박꾼과 이편을 피우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조선의 달라진 세태를 『신보』에서는 “『漢書』에서 말하기를, 箕子の 나라는 「天條之約」으로 마을에 도둑이 없고, 盜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 도둑과 盜의 기풍이 만연하니 이전과 완전히 다르다.”<sup>100)</sup>라고 기사화 하였다. 도둑 없고 절개와 예의의 나라였던 조선에 도둑과 기생, 도박, 아편이 만연하여 갔던 것이다.

근래 조선에 도적이 대단히 많아 서울 근교에서 강도 사건이 끊이지

않는데 매번 수십 명씩 모여 발생한다. 국왕이 대단히 노하여 포도대장에게 책임을 명하여, 필십여 명을 체포하여 성문에서 모두 참수하였다.<sup>101)</sup>

근래 전라도와 경상도에 난민들이 별 폐척림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대개는 흉년으로 도둑이 된 자들이나 심지어 관청에까지 몰려들어 관물을 겁탈해간다. 관리들이 난민들을 막아보려 하지만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니 지방관들도 별 방법이 없다.<sup>102)</sup>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없었던 정부에서는 형벌을 강화하여 잡을 주는 수밖에 없었다. 잡힌 도둑들은 본보기로 거리에서 참수되어 거리에 그 목이 걸려졌다. 도둑들이 길거리에서 참수되어 전시되었다는 기사가 끊이지 않고 보도되었다.

경상도에서 도적 세 명을 잡아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참수하였다.<sup>103)</sup>

5월 14일 목이 잘린 도적 다섯 명의 목이 거리에 걸려 사람들에게 경중을 주었다.<sup>104)</sup>

함경도에서 도적 열 명이 잡혀서는 바로 목이 잘려 전시되었다.<sup>105)</sup>

西門 밖에서 또 흉악범 네 명이 목이 잘리니 그 무서운 장면에 사람들이 도망하였다.<sup>106)</sup>

98) 『申報』, 『高麗續錄』, 1886. 12. 7.

99) 『申報』, 『東藩餘話』, 1885. 3. 11.

100) 『申報』, 『高麗續紀』, 1887. 1. 2.

101) 『申報』, 『摘錄東報』, 1884. 2. 29.

102) 『申報』, 『東報述高麗事』, 1886. 2. 22.

103) 『申報』, 『朝鮮雜錄』, 1886. 3. 10.

104) 『申報』, 『高麗雜錄』, 1886. 7. 13.

105) 『申報』, 『東國采風』, 1886. 10. 30.

華商들의 점포가 터져 많은 재물이 도난당한 소식, 독일 영사처 등의 외국 공사관이 털린 소식<sup>107)</sup> 등등이 특히 1885년 1886년 사이에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더구나 사회 풍조의 문란으로 도박과 아편을 하는 자들도 날로 많이졌고 가난한 집 여인들은 사창가로 내몰렸으니 나라의 장래는 그야말로 안팎으로 광명한 세기말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도박꾼들이 도박장을 설치하여 백성들을 유혹하며 항상 싸움질을 한다. 관에서 십여 명을 잡아 엄히 처벌하고 무에 형틀을 씌어 거리를 돌게 하여 군중에게 보였다. 108)

도박이 매우 상행을 한다. 빈둥거리는 자들은 모두 도박꾼이다. 백성들이 말하기를 도박꾼과 도적이 어찌 이리도 많은 말인가 한다. 109)

야간에 거리를 다니는 여자들은 대부분이 私娼이다. 110)

가난한 집의 여자들이 娼妓가 되니 살기 위해서이다. 娼館이 이전에 비해 수십 배나 늘고 음란한 풍조가 상행하고 있다. 111)

일반 백성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미 아편을 하고 있다. 부귀한 집 부녀자들이 아편을 마시니 이렇게 몇 년이 지나면 동방의 淨土가 아편 세계로 변할 것이다.<sup>112)</sup>

- 106) 『申報』, 『東藩雜誌』, 1886. 12. 6.  
 107) 『申報』, 『高國漁業』, 1884. 9. 3.  
 108) 『申報』, 『朝鮮近事』, 1885. 8. 9.  
 109) 『申報』, 『三韓叢話』, 1886. 1. 20.  
 110) 『申報』, 『韓國采風』, 1886. 1. 13.  
 111) 『申報』, 『三韓叢話』, 1886. 8. 1.  
 112) 『申報』, 『高麗瑣紀』, 1886. 12. 31.

세기 말적 암운은 정치 외교적 측면 이외에도 사회 곳곳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도둑과 범죄의 증가, 도박과 아편의 상행, 私娼의 범람 등과 더불어 특별히 자연재해와 전염병까지 민연하였다. 천연두와 알 수 없는 전염병이 창궐하였고, 계속된 흉수와 가뭄으로 농토가 유실되어 농민들은 집을 떠나 도둑으로 전락되어갔다.

## 5. 결론

나라의 문을 열기시작하면서 조선이 맞이한 내부적인 첫 충동은 임오군란이었다. 이는 외형적으로는 구식군대와 신식군대의 충돌이라는 형태를 띠고 나타났고, 2년 뒤 준비되지 않은 개혁 감신정변은 다시 개혁파와 수구파의 정면 충돌로 끝이 나고 말았다.

이 어지러운 격변기에 조선 사회는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하는 궁금증으로 이 논문을 시작하였다. 대내외적인 위기에 당면한 조정은 왕실행사를 강화하고 유교이념에 투철한 인재를 뽑아 봉건왕조를 지키기 위해 인간함을 썼다.

혼란한 국내의 정세 속에서 계속된 흉년과 전염병은 백성들을 더욱 질병과 굶주림에 내몰았고 이를 지켜보는 고종 황제의 고통과 번뇌를 읽을 수 있었던 기사들도 많았다. 속수무책인 왕실은 무속 신앙에 의지해 액막이굿을 하거나 軍禱의 영험이 있다고 하는 관제에게 제례를 올리기도 하였다.

중국 병사들의 미귀환은 그들을 범죄 집단으로 만들었고 조선사회에 불온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아편과 도박 등을 급격히 퍼트리는 온상이 되었다. 전염병과 흉년으로 백성들은 굶주림에 내몰렸고 이는 범죄의 증가와 사회질서의 붕괴를 가져왔다.

이러한 다방면에 걸친 조선 사회의 정치 사회적 사건들을 외국 기자의 시각으로 다양하고 상세히 보도하고 있는 『신보』의 기사와 논설들은 조선에 대한 긍정적 평가나 혹은 왜곡된 시각까지도 그 이면을 통해 120년 전의 조선을 다시 들여다 볼 수 있는 자료로 활용 가치가 있는 자료들이다. 수없이 잡다하게 많은 기사와 논설들을 주제에 맞추어 나누고 이를 다시 몇 개의 틀로 묶어보려는 시도가 쉽지 않았지만, 조선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과 얽혀진 풍속들, 그리고 游勇의 심각했던 사회문제 등등의 비교적 생생한 기사들을 『신보』를 통해 고찰 해 볼 수 있었다. 그것은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이 서로 격돌하며 투쟁하고 있던 조선사회의 현상이었으며, 봉건왕조에 대한 집착과 동시에 근대화에 대한 열망이 함께 녹아 내렸던 왕실과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다.

## 기린—미하일로프스키의 여행기에 비친 1898년의 한국

—『조선, 민주, 요동반도 기행』과 『조선의 민담』

이 회 수

### 1. 서론

한국인은 행복을 얻기 위해 조상들의 무덤을 여기저기로 옮기며, 거의 해마다 마을의 이름을 바꾸고, 예언자들에게 기사서 행복을 주는 날을 물어본다.

한국의 산비탈에는 아쟁포도가 자라고, 골짜기에는 아쟁 사과, 바찌, 자두가 있으며, 산에는 금과 철, 은, 납과 석탄이 있다. 하지만 이런 것은 한국인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 한국인에게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무거운 돈보다 그리고 빈약한 경작지보다 더 소중한 것이다. (IV, 167)<sup>1)</sup>

19세기 중반 한국과 러시아의 교류가 시작되었다. 러시아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근대’의 물결 속에서 이웃과 ‘세계’의 폭을 넓혀갔다. 양국간의 외교관계가 수립된 시기부터 1905년까지 반세기 동안 한국과 러시아는 존재조차도 알지 못하던 나라와 그 민족성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1860년대부터 국경을 접한 이웃나라가 된 한국과 러시아는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어쩌면 그 부모의 세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

1) 이하 『조선, 민주, 요동반도 기행』과 『조선의 민담』에서 인용은 1958년 모스크바에서 출판된 기린 선집 (Гарин - Михайловский Н.Г.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В ПЯТИ ТОМАХ* Москва : ГИИЛ, 1958) 을 기준으로 한다. 권은 로마자로, 해당 하는 면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